

# 전자신문

Premium Data Center의  
대용량 DDoS 방어시스템, 클린존  
kt ICC (비즈니스 IDC) 문의: 1588-0660 [data114.com](http://data114.com)

연중기획 / 실감미디어 4면    스마트폰 사용자 '백신엔 속맥' 8면    스우포, 한국시장 공식 철수 12면    섹션 / Future 17~19면

## u시티 '없던 일로'?

국토부·LH공사, 사업보류·축소 검토  
"건설정책 실패 책임 전가" 비판 거세

김원배·정진욱기자 adadkim@etnews.co.kr

u시티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u시티 사업을 보류하거나 기존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 중이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가 인하 압력이 거센데 LH의 천문학적 부채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u시티를 반도체에 비유하는 수출효자로 카우보이던 국토부마저 입장을 선화하면서 대표적인 컨버전스 산업인 u시티가 꺾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고 있다.

18일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부 신도시개발과가 신도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건설 중인 u시티 관련 시스템 구축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규 u시티 사업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도시개발과는 이 같은 의견을 u시티를 담당하는 도시재생과 관계자 등에게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도시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지침이 부처에 하달됐다"며 "u시티에 IT시스템이 대거 적용돼 분양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판단했으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u시티 추진을 놓고 내부 관계자들이 이견을 보이는 등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u시티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주무부처가 사업을 포기하는 형국이다.

윤현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방향성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LH는 아예 최고경영진이 u시티 사업의 속도 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LH 최고경영진이 u시티 사업을 연기하라고 u시티 사업처에 지시했다"며 "신도시 미분양 사태로 공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u시티를 제외하고 신도시를 건설할 이후 추가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u시티 관련 기업 한 임원은 "수심조원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u시티 사업은 말아야 할 배역원에 불과해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며 "각종 건설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래 성장동력인 u시티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신도시 개발 이후 u시티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LH는 16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폰서와 자산 판매 총력 스태프적인 사업 조정 스텔화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스텔화적인 등 경영개선 단행에 주요 내용으로 비상경영 결의를 발표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정보기술(IT) 서비스와 통신, SW, 건설사 등은 LH의 이 같은 계획이 u시티 사업 지연에 이은 u시티 사업 축소라는 부담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 "정보수집사건, 한국정부에 적극 협조"

###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정준기자 djang@etnews.co.kr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이 경찰의 구글코리아 압수수색은 오해로 벗어났기 때문이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서울 연남동 구글코리아에서 이뤄진 영상 인터뷰에서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은 최근 구글코리아

에 대해 실시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이번 사건은 오해로 벗어난 결과"라고 진재하며 "구글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므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놔다.

그는 또 "소프트웨어 여러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일어난 일으므로 정보 폐기 등 추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구글 간 공동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세상의 나노기술 속으로 '녹색세상을 향한 나노기술'을 슬로건으로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나노코리아 2010'에서 KIST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탄소나노튜브의 특징을 3D화면으로 살펴보고 있다.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개국 250개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신제품 발표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련기사 11면

## 아이폰4 예약판매 '돌풍'... 9월 시장 더 뜨겁다

13시간 35분만에 13만대 돌파... 갤럭시S '스 화이트'로 맞붙

### 이정민기자 victolee@etnews.co.kr

오후 7시 35분을 넘어가면서 13만대를 돌파했다.

아이폰3GS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 85만대가 팔렸고, 갤럭시S는 최근 55일 만에 80만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이폰4가 주춤한 사이 슈퍼 AM OLED 화면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무장한 갤럭시S가 시장을 파고들면서 상당한 입지를 다졌다.

아이폰4의 초반 예약판매 성적표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9월 이후 아이폰4와 갤럭시S가 팔리게 될 제2 라운드 경쟁은 또다시 혼전이 예상된다.

아이폰4 예약판매가 시작된 이

오후 7시 35분을 넘어가면서 13만대를 돌파했다.

아이폰3GS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 85만대가 팔렸고, 갤럭시S는 최근 55일 만에 80만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이폰4가 주춤한 사이 슈퍼 AM OLED 화면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무장한 갤럭시S가 시장을 파고들면서 상당한 입지를 다졌다.

아이폰4의 초반 예약판매 성적표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9월 이후 아이폰4와 갤럭시S가 팔리게 될 제2 라운드 경쟁은 또다시 혼전이 예상된다.

아이폰4 예약판매가 시작된 이

오후 7시 35분을 넘어가면서 13만대를 돌파했다.

아이폰3GS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 85만대가 팔렸고, 갤럭시S는 최근 55일 만에 80만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이폰4가 주춤한 사이 슈퍼 AM OLED 화면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무장한 갤럭시S가 시장을 파고들면서 상당한 입지를 다졌다.

아이폰4의 초반 예약판매 성적표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9월 이후 아이폰4와 갤럭시S가 팔리게 될 제2 라운드 경쟁은 또다시 혼전이 예상된다.

아이폰4 예약판매가 시작된 이

오후 7시 35분을 넘어가면서 13만대를 돌파했다.

아이폰3GS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 85만대가 팔렸고, 갤럭시S는 최근 55일 만에 80만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이폰4가 주춤한 사이 슈퍼 AM OLED 화면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무장한 갤럭시S가 시장을 파고들면서 상당한 입지를 다졌다.

아이폰4의 초반 예약판매 성적표가 기대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9월 이후 아이폰4와 갤럭시S가 팔리게 될 제2 라운드 경쟁은 또다시 혼전이 예상된다.

아이폰4 예약판매가 시작된 이

데이터 저장장치 백업, 삭제  
**Data복구**  
**휴대폰복구**

(주)씨앤씨

전문상담:080-236-5114  
[www.data114.com](http://www.data114.com)

중국 최대의 IT 기업인 삼성전자의...  
**15" 4GB 용량형 방송용 SDI, Audio, RS-232C/422, Ethernet 전송장치**

www.data114.com

**BUFFALO**  
기업전용 파일서버  
**버팔로 NAS(버퍼드)**

SOHO 환경에 최적화  
확장성 뛰어난 하드웨어

www.data114.com

**ABCQ**

**믿음, 꿈, 보람 그리고 창의와 변화**

**품질제일을 통한 고객감동실현**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건전한 기업문화형성**

**이베코 제품**

이베코 전자파 경기도 성남시 송파구 현대한솔 5448-4  
☎02-739-5063 [www.abcq.co.kr](http://www.abcq.co.kr)